

## HEADLINE NEWS

### 역사적 문화 건축물을 결혼식 장소로 제공 (런던)

영국 런던市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역사적 건축물 중 하나인 타워브리지가 최근 결혼식 장소로 허가되었다. 19세기 후반에 건설된 이 다리가 추억에 남을 결혼식 장소로 개방된 것이다.

시민들은 이제 타워브리지에서 일주일 내내 650파운드의 대여료만 내면 Bridge Master의 식당에서 소규모 예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혼식 후에는 최대 250명의 하객에게 뷔페를 대접할 수 있는 피로연장도 다리의 보도에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市에서 이 역사적 건축물을 결혼식 장소로 허가한 것은 최근에 시민들이 런던아이, 런던박물관, 올드 빅 극장, 찰튼 애슬레틱 축구장 등 특색 있고 유래가 깊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www.towerbridge.org.uk](http://www.towerbridge.org.uk))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인터넷을 통해 도시계획 정보 제공 (동경)
- ② 지하철 재난에 대비해 독가스 제거용 공기 팽창식 대피호' 시험훈련 실시 (런던)

### 도시환경

- ③ 모든 자동차에 알코올 연료 사용 의무화 (중국 吉林省)
- ④ 버스업체들 "런던에 깨끗한 공기를" 캠페인 전개 (런던)
- 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후차량 교체 프로그램 실시 (퀘벡)

### 도시교통

- ⑥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도로건설사업 홍보 강화 미국 샤이엔市)
- ⑦ 다(多)주차면 관리 무인주차미터기 시범운영 (보스턴)
- ⑧ 첨단 도로기상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펜실베이니아州 해리스버그市)
- ⑨ 광역 보행자 안전 캠페인 전개 (워싱턴 D.C.)
- ⑩ 대중교통 이용 관련 안전의식 강화 프로그램 실시 미국 전역)

### 사회복지·문화

- ⑪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스페인: 발렌시아州)
- ⑫ 「홈리스 자원활동」 강좌 개최 (히로시마)

### 행·재정

- ⑬ 보도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인접 건물소유주가 배상토록 법률 개정 (뉴욕)

# 도시관리

## 세계도시동향

### ① 인터넷을 통해 도시계획 정보 제공 (동경)

일본 東京都는 지난 11월 10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도시계획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공되는 도시계획 정보는 都의 23개 區部와 多摩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철도·공원·녹지·재개발사업구역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약 1만분의 1 정도의 지도상에 위치를 표시하고, 관련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도시계획 정보는 200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都는 앞으로 제공되는 항목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都도시계획국([www.toshikei.metro.tokyo.jp](http://www.toshikei.metro.tokyo.jp))에 접속하여 ‘도시계획 정보 인터넷 제공 서비스’ 배너를 클릭한 다음, 자신이 열람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의 도시계획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웹상에서 제공되는 도시계획 정보는 대략적인 위치와 내용을 표시한 참고 자료로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都나 해당 區市町の 도시계획 상담창구를 통해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東京都 도시계획 정보 인터넷 제공 서비스 (東京역 주변)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3/11/20db72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3/11/20db7200.htm))

# 도시 관리/도시 환경

## ■ 세계도시동향 ■

### ② 지하철 재난에 대비해 ‘독가스 제거용 공기 팽창식 대피호’ 시험훈련 실시 (런던)

최근 영국 런던 지하철에서는 화학물질 테러공격 대비 훈련에서 독가스를 제거하는 혁신적인 공기 팽창식 대피호의 시험훈련이 있었다. 이 훈련에는 500명의 응급 구조원들이 참여하여 터널 속의 지하철에서 승객을 구조해 병원으로 수송하고 ‘독가스 제거용 공기 팽창식 대피호’로 인도하는 훈련을 했다.

‘Hughes Safety Showers’사가 제작한 최첨단 대피호는 압축공기 탱크에 플러그를 꽂기만 하면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이 대피호는 독가스 제거용 샤워가 쏟아지는 동안 작동 준비가 완료되도록 설계되었다. 이 급속 독가스 제거용 대피호 모델은 영국 소방기관들이 소방수들이 입는 방호복에서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 장비로, 아주 견고한 공기 팽창식 구조와 탈부착이 가능한 안감, 장비에 부착된 물받이통 배수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www.uk.or.kr/cyber/list.html?dno=15486&cid=5&lang=k&umode=graphic&mid=m67&keyfield=&page=1&key=&ano=1&mode=detail&tno=89&cmonth=11&cyear=2003&opta=](http://www.uk.or.kr/cyber/list.html?dno=15486&cid=5&lang=k&umode=graphic&mid=m67&keyfield=&page=1&key=&ano=1&mode=detail&tno=89&cmonth=11&cyear=2003&opta=))

### ③ 모든 자동차에 알코올 연료 사용 의무화 (중국: 吉林省)

최근 중국 지린성(吉林省) 정부는 공해 방지와 석유 절약을 위해 모든 자동차에 휘발유 대신 알코올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린성(吉林省) 정부는 알코올 농도 10% 이상의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2만~3만위안(약 4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省 단위에서 알코올 연료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省당국은 이 계획이 대기오염 감소, 새 에너지원 사용 확대, 석유 사용 절약, 농업 개발 촉진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밝혔다. 省당국은 연간 60만 생산을 목표로 2001년부터 곡물을 원료로 하는 알코올 연료 프로젝트를 추진, 지난 9월 시제품을 생산한 바 있다.

([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832003111200300+20031112+1016](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832003111200300+20031112+1016))

### 4] 버스업체들 “런던에 깨끗한 공기를” 캠페인 전개 (런던)

최근 영국 런던市에서는 버스운송업체들이 버스의 배출가스 오염을 감소시켜 市의 대기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런던에 깨끗한 공기를”이라는 운동을 벌이면서, 공해 유발이 적은 1,100대의 버스를 도입했고, 작년에만 800대의 버스에 분진제거장치를 장착했다.

버스운송업체들은 이밖에도 버스제작업체와 협력하여 가스배출시험, 차량별·연료별 비교시험, 디젤 엔진과 다른 연료들에 대한 검토,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수소연료전지(HFC) 사용버스 실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버스운송업체들은 보다 오염이 적은 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시험운행, 전기혼용버스 시험운행 등을 통해 市의 대기질이 앞으로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transportforlondon.gov.uk/buses](http://www.transportforlondon.gov.uk/buses))

### 5]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후차량 교체 프로그램 실시 (퀘벡)

캐나다 퀘벡(Quebec)市는 ‘Association quebecoise de lutte contre la pollution atmospherique’의 주관 하에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 및 매연을 줄이기 위한 노후차량 교체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차량 주인이 원할 경우 노후차량을 대중교통 승차권이나 소득세 환급 우대조건 등과 교환해 주고, 노후차량은 폐차 처리할 예정이다. 당국은 약 2,000대의 노후차량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7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의 지원과 지역 내 자원재활용 업체의 재정 지원으로 충당될 계획이다. 현재 市에서는 1988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 전체 4,400만대의 10% 수준이지만, 이들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전체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www.smartgrowth.org/news/article.asp?art=3701&state=54](http://www.smartgrowth.org/news/article.asp?art=3701&state=54))

### 6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도로건설사업 홍보 강화 (미국: 샤이엔市)

미국 와이오밍州 샤이엔市는 주요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뮬레이션 제작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도로 건설사업과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도로건설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市당국은 향후 추진되는 주요 도로건설사업부터 도로 완공 후 모습에 대한 2·3차원의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wydotweb.state.wy.us/web/news/press\_releases/2003/visual/visual.html)

### 7 다(多)주차면 관리 무인주차미터기 시범운영 (보스턴)

미국 보스턴市 교통국은 최근 새로운 주차미터기 ‘Multi-space parking meter’를 통한 주차장 관리를 시범운영중이다. 이전에는 각 주차면마다 주차미터기를 설치했으나, 새로운 주차미터기는 1개의 주차미터기로 여러 주차면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현재 운영중인 ‘Multi-space parking meter’는 2종류이다. ‘space meter’는 주차미터기 1대당 4~7개의 주차면을 관리하며, 이용자가 현금이나 카드로 주차할 시간만큼 주차요금과 주차면 고유번호를 주차기에 입력하면 무인주차기에 주차면별 주차가능시간이 표시되어 주차단속요원이 불법주차를 관리할 수 있다. ‘pay and display meter’는 주차미터기 1대당 5~8개의 주차면을 관리하며, 무인주차기를 통해 주차요금을 지불하면 부착테이프가 붙은 영수증이 발행되는데, 이 영수증을 자동차의 보도쪽 차창 안쪽에 부착하면 된다.



이 주차미터기의 장점은 주차요금을 현금이나 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고, 다양한 언어 지원기능으로 외국인 이용이 편리하며, 미터기 설치가 어려운 주차면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주차면마다 미터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거리경관이 깨끗해진다는 점이다. 미터기는 태양열로 충전이 가능한 태양건전지로 작동된다. (www.cityofboston.gov/transportation/multispace\_meters.asp)

### 8] 첨단 도로기상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市)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유료도로(Turnpike) 구간에서 안개, 비, 눈과 같은 기상 조건 악화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 도로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가시거리, 차량통과속도, 도로표면 상태 등을 측정하는 센서와 도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폐쇄회로 카메라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상조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표지판을 통해 자동으로 경고신호를 운전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또한, 가변제한속도 표지판을 운영하여 기상조건에 맞는 제한속도를 설정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하게 된다.

지난 4월에 이 도로구간에서 안개 때문에 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러한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당국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약 300만~5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2004년 가을 경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ww.tribune-democrat.com/site/news.cfm?newsid=10448765&BRD=2332&PAG=461&dept\\_id=484742&rfi=6](http://www.tribune-democrat.com/site/news.cfm?newsid=10448765&BRD=2332&PAG=461&dept_id=484742&rfi=6))

### 9] 광역 보행자 안전 캠페인 전개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메릴랜드 및 버지니아주 일부까지 포함하는 광역 보행자 안전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신문 및 라디오 광고, 안내판 등을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보행자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신호제도 및 표지판 체계에 대한 홍보도 전개하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캠페인이 市를 보행 중심 도시로 바꾸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ddot.dc.gov/news\\_room/2003/October/10\\_17\\_03pr.shtm](http://www.ddot.dc.gov/news_room/2003/October/10_17_03pr.shtm))

# 도시교통/사회복지·문화

## ■ 세계도시동향 ■

### 대중교통 이용 관련 안전의식 강화 프로그램 실시 (미국 전역)

미국 연방 대중교통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관련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Transit Watch」라는 이 프로그램은 대중교통 승객 및 운영자들에게 대중교통의 안전한 운행여건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국은 안내책자, CD 등을 무료로 배포하여 대중교통운영기관 등에서 안내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자료에는 대중교통 승객 및 운영자가 안전 및 보안과 관련한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취해야 할 행동 등이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1970년대에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던 범죄예방 프로그램 「Neighborhood Watch」와 유사하다.

([www.transit-safety.volpe.dot.gov/Security/SecurityInitiatives/Items/transitwatch.asp](http://www.transit-safety.volpe.dot.gov/Security/SecurityInitiatives/Items/transitwatch.asp))

### 모든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스페인: 발렌시아주)

스페인 발렌시아(Valencia)주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안전 진입로 및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을 최근 공포했다. 2004년부터 발효되는 이 법령에 따라 모든 신축건물은 장애인을 위한 안전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과 기타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건물들도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적용대상 시설에는 극장, 도서관, 박물관, 은행, 사무실 등의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소규모 상점도 포함된다. 술집과 음식점 등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도 설치해야 한다. 현재 발렌시아주에는 20,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www.costablanca-news.com/local.htm](http://www.costablanca-news.com/local.htm))

# 사회복지·문화/행·재정

## ■ 세계도시동향 ■

### ☞ 「홈리스 지원활동」 강좌 개최 (히로시마)

일본 히로시마縣 히로시마市와 후쿠야마市에서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홈리스들이 처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홈리스 지원활동」을 주제로 한 강좌를 최근 개최했다. 이번 강좌에서 사회복지사회 회원과 행정 담당자, 홈리스 지원활동을 하는 ‘홈리스의 인권을 지키는 히로시마 야간 순회의 모임’ 멤버들이 홈리스 지원실태와 지원활동의 과제, 사회적 지원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 히로시마市는 수강생 50명, 후쿠야마市는 수강생 30명을 모집하여 강좌를 진행했다.

(마이니치 신문, 2003. 11. 14)

([www.mainichi.co.jp/area/hiroshima/news/20031114k0000c034003000c.html](http://www.mainichi.co.jp/area/hiroshima/news/20031114k0000c034003000c.html))

### ☞ 보도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인접 건물소유주가 배상토록 법률 개정 (뉴욕)

미국 뉴욕市의 경우, 그동안 보도상의 눈·얼음 치우기 및 보도 수선 관리 책임은 보도 인접 건물 소유주에게 있었으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건물 소유주 대신 市가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 市는 지난 3년간 이러한 보도 결함으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비용으로 1억 8,900만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번에 법률을 개정하여 배상 책임을 건물소유주가 지도록 했다.

市는 이 법률 개정으로 매년 4천만달러 이상의 재판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건물소유주들이 보도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들의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市는 보도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물소유주가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index.jsp?pageI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h2003-10-09](http://index.jsp?pageI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h2003-10-09))